

'체포방해'尹·'주가조작' 김건희 항소심 금주 줄줄이 선고

'통일교 의혹' 권성동 '정자법' 2심 선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尹항소심도 시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진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석석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 2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출범 후 이뤄지는 첫 선고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을 생중계할 예정이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1심에서도 이러한 생중계가 이뤄진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 1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는 1심 때와 동일한 구형량이다.

통일교로부터 금품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한 의혹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곧 예정돼 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는 20일 오후 3시 김 여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대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사건 선고도

마찬가지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래프 데이터 아몬드 목걸이 1개, 사넬 가방 2개 등 합계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로 보고 통일교로부터 가방 1개와 목걸이를 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김 여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같은 날 오전 10시30분에는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1심 선고가 난 지 6일 만이다. 재판부는 내달 7일을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에 기일을 열기로 정해둔 상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법의 날' 헌법전 만들기 체험 제63회 법의 날을 맞은 지난 25일 오후 광주 북구 솔로몬로파크에서 '2026 법 페스티벌'이 열려 참여자들이 가정 헌법전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조영권기자

지역 국회의원의 발의 민생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서삼석 대표발의 '산림보호법' 개정안
- 조인철 '보이스피싱 방지법' 등 2건
- 정준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도
- 김문수 '국립의전원 설립법' 등 3건



를 제도화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 핵심 과제로 내세운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과학기술 분야에서 법제화한 첫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민주당, 광주 북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민생 관련 법안들이 대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대표발의한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산림의 공익가치 유지·증진과 산림 보호 활동에 기여한 산림소유자를 지원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산림 보호의 공익적 부담을 산주 개인이 홀로 떠안는 구조에서 벗어나, 국가가 제도적으로 책임지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관련 제도 도입 필요성은 정부·지자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서삼석 의원은 "산림은 탄소중립 실현과 국

민 삶의 질 향상에 핵심적인 공익자산임에도 그동안 산림 보호에 따른 부담은 산주 개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돼 왔다"며 "법 개정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같은 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갑,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이 대표발의한 법안 2건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도권 집중 연구개발(R&D) 구조를 전환하는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보이스피싱의 핵심범죄 도구인 발신번호 변자기 제조·수입·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특히 제정법인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은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R&D 구조를 전환하고 지역이 과학기술 혁신의 주체가 되는 체계

를 제도화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 핵심 과제로 내세운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과학기술 분야에서 법제화한 첫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안은 신택사기 피해 주택의 매입 절차를 보완하고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신택사기의 공공주택사업자 혐의 의무 부과, 매각 희망 금액 및 관리관계 서면 제출 의무 부과 등이다. 이를 통해 모호했던 매입 절차가 투명해지고 신택사기 피해 주택의 공공 매입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 밖에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국립의전원 설립법'도 대안 반영 형태로의 결되며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진수기자

안도걸 오늘 '의료 데이터 활용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안전한 의료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과 활용 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와 공동 주최로 진행되며, 안도걸 국회의원·대한의료정보학회·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 주관한다.

최근 AI 기반 진단과 맞춤형 치료 확산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의료데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활용 기반 구축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



호 규제, 데이터 분절, 기관 간 연계 부족 등으로 활용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안 의원은 "의료 현장에 이미 AI 기반 진단과 맞춤형 치료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의료데이터 활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다만 데이터 활용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 확보와 함께, 데이터 제공에 따른 합리적 보상과 이익 공유 구조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NH농협손해보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3억 가입

특어청
상품등록 : 제40-1007119호

나왔다!!! 마시는 씨알-렉스 PREMIUM

고객의 성원에 힘입어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씨알-렉스가 출시되었습니다.
효능·효과는 물지마세요!

주요성분

비수리(야관문), L-아르지닌, 아연, 마카, 복분자, 토사자, 오미자, 사상자, 산수유, 마늘 등

남자한테 좋은데~
표현하기가~

1박스-60,000원

※ 하루 한포면 충분합니다.

각 시·군 취급점 모집

주문 080-374-5046 / 010-3738-8989

© 광주 약국에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보람약품(주) 062)528-6664